

# 체육과 교육, 양회 열점 키워드로 빈번히 떠올라!



올해 랑회에서 체육과 교육의 융합은 대표위원들이 관심하는 초점중 하나로 되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로서 교육이 흥하면 국운이 흥하고 청소년이 강하면 중국이 강하다. 덕, 지, 체, 미, 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을 양성하는 것은 전사회의 공동한 책임이다.

### 근시와 동보를 예방하는 '처방'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탁구협회 주석인 류국량은 "체육은 아주 많은 기능이 있다. 이는 어느 한 종목의 운동에서 금메달을 따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체육은 교육의 일부"라며 체육단련을 통해 아이들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인격을 런마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체육을 통해 아이들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거움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칙 인식과 압력 저항 능력을 향상시키고 승부와 우여곡절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국가 프리스타일 스키 공중기술팀 코치인 기둥은 빙설운동은 아이들의 체력을 증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로서 눈이 덮인 땅에서 아이들은 용감하게 도전하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며 완강하게 분투하는 정신품질을 런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경성적으로 해빛 아래에서 운동하면 신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관련 대표위원들은 '근시, 동보, 곱사 등이, 초조함'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육과 교육의 융합을 심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며 체육단련은 좋은 처방이라고 밝혔다.

### 매일 2 시간씩 야외운동 보장해야

어떻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야외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까? 일부 대표위원들은 수업시간을 늘이고 체육시간을 보장하며 체육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어린이, 청소년은 매일 2 시간의 야외운동을 보장해야 한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국가체육총국 운동의학연구소 운동건강의학연구센터 주임인 엄언호는 소학생은 1학년부터 5학년 까지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을 30분으로 하고 6학년부터 고등단계 휴식시간을 20분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늘어난 휴식시간에 아이들이 야외에서 운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시력 개선, 신체, 심리 건강에 모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고중입시에서의 체육의 인도 작용 잘 발휘시켜야

전국정협 위원이며 우리 나라 동계 올림픽 첫 금메달 리스트인 양양은 많은 지역에서 현재 체육 고중입시를 개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단련을 촉구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양양은 고중입시에서의 체육의 인도 작용을 발휘시키고 '성적을 위해 운동하고 시험을 위해 단련하는' 관념을 전변시켜 과학적으로 입시 내용을 설치하고 학생 개인 차이를 존중하며 과정성 평가와 결과성 평가를 융합시키고 '한번의 시험으로 평생을 결정하는' 것을 피하며 건강한 신체와 인격을 구비하는 것이 점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화사

## 4 조 2 천억원 초과! 2024년 우리 나라 교육 지출 계속 증가



2022년 3 조 9,000 억원 초과, 2023년 4 조 1,000 억원 초과, 2024년 4 조 2,000 억원 초과...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차 회의 심의에 제정된 예산보고에서 전국 일반공공 예산의 교육 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교육 지출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예산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앙재정 교육 지출의 중점은 의무교육의 질 높고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농촌 일체화, 고등교육의 고품질 발전 지원, 학령전 교육의 대중화 촉진, 학생자금지원정책 시행, 일반고중의 고품질 특색발전 촉진, 특수교육의 보편혜택 발전 강화, 직업교육의 고품질 발전 촉진 등 다양한

방면을 망라한다. 이 밖에 지방대학 개혁도 지지를 받고 있다. 예산보고는 고수준의 연구형 대학 개혁 발전을 편향 지원하고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대학 및 우수세과 건설을 가속화하며 중앙재정은 지방대학의 개혁 및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404 억원의 관련 이전 지출을 마련한다고 제기했다.

/ 신화사

## 심리건강, 아이 성적보다 더 중요한 일!

올해 전국 랑회에서 청소년 심리건강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대표위원들은 미성년자 심리건강 '가정 학교 병원 사회' 련동 썬서비스기제 구축, 중소학교 심리교사대우 구비 등 방면에서 많이 사색하고 건의를 제기했다.

현재 청소년 심리건강 문제가 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어떻게 청소년 심리건강을 보다 잘 보호할 것인가, 가정과 학교는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등 문제를 둘러싸고 대표위원들은 의견을 피력하고 건의를 제출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하남성 주구시 동진구 허만항 희망소학교 교장인 리령은 전문 정신건강 교육교사의 배치 및 훈련 문제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다. 례하면 중소학교 정신건강교사의 배치를 지방 교육감독지도의 중요 내용과 학교 종합성적 평가

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심리건강교사 직업발전에 대한 지지와 보장을 강화하고 직업평가, 로임대우, 우수평가에서 심리건강교사에 적절하게 편향할 수 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서남대학 부교장인 조옥방은 청소년 심리건강 보호 방면에서의 학교와 가정의 작용은 상호 대체할 수 없지만 우세 보호는 실현할 수 있다면서 가정과 학교는 공동으로 보다 튼튼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심리건강 보호 장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상해 신기원교육집단 이사장이며 국가교육감인 진위지는 방법을 통해 미성년자 심리건강 문제의 관리 효능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 심리건강의 체계성과 조작성능을 촉진할 것을 건의했다.

/ 인민넷

## 청화대학 평일에도 참관 가능! 이런 대학 예약없이 개방

새 학기에 많은 대학들이 예약없이 개방되었다. 중국농업대학 등 많은 대학이 캠퍼스를 사회에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외부 방문객은 예약 없이 신분증을 스캔하면 이런 대학들을 참관할 수 있다. 그 이전에 교문을 개방한 대학들도 캠퍼스 개방 시간을 늘리고 상호 교류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관람객들의 참관 체험을 풍부히 하고 있다.

3월 2일과 3일, 중국농업대학은 새 학기 개방의 첫 주말을 맞이했다. 이 학교 곤충박물관은 이를 동안 1,500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자원봉사단장 양호연은 현재 이미 36 명의 교원과 학생 자원봉사 해설자를 모집했으며 이번 학기에는 자원봉사실명에 질의응답 일련을 추가했다고 소개했다. 향후 농업대학 동물의학박물관, 동물과학및기술대학 사료박물관 등과 공동으로 박물관 방문활동을 기획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에 외부 관람객을 대상으로 개관하고 있으며 평일의 관람 인원을 늘일 예정이다. 이 밖에 이번 학기부터 청화대학은 평일의 캠퍼스 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000 명의 예약 명액을 개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1만 2,000 명으로 늘린다. 청화대학 보위부 직원인 장운등은 학교는 캠퍼스 참관 정책을 더욱 최적화하고 중소학생 및 가족 참관 예약의 성공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경리공대학에서도 교외 관람객을 학교 보고실로 초대하여 공공박물관 전임 원장 단재상 등 성공인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했다.

청화대학, 북경대학, 중국인민대학, 북경외국어대학, 북경건축대학 등 대학교가 개방을 명확히 한 후 새 학기에는 중국농업대학, 북경교통대학, 북경림업대학 등 많은 대학들이 캠퍼스를 사회에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 종합

## 룡정실험소학교, 퇴봉 따라배우기 계열 활동 전개

퇴봉의 사적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퇴봉정신은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3월 5일은 제 61 번째 퇴봉 따라배우기 기념일이다. 퇴봉정신을 계승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고양하며 조화롭고 명명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룡정실험소학교에서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퇴봉정신을 계승하여 세시대 좋은 소년'이 되자는 주제로 일련의 활동을 전개했다.

'퇴봉을 따라배워 행동으로 문명을 실천하자'는 주제의 국기 계양식을 진행했다. 전교 사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씩씩한 자태의 호기대 학생들이 장엄한 발걸음으로 산뜻한 오성붉은기를 에워싸고 입장했으며 웅장한 국가와 함께 오성붉은기가 천천히 계양되었다.

소년선봉대원 대표가 <퇴봉을 따라배워 새로운 기풍을 고양하며 문명행위습관을 양성하자>는 제목으로 강



주제반회의 장면

연을 하고 지도원 김향화는 국기 아래의 연설로 전교 소년대원들에게 퇴봉

정신을 학습하고 전승하며 퇴봉 학습실천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나부터 시

작하고 신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량호한 행위습관을 양성할 것을 호소했다.

동시에 1층 전자형광판을 리용해 '퇴봉의 날' 유래를 담은 동영상을 방영했다.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진정으로 퇴봉정신을 체득하고 생활과 학습에 융합시켜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발양하도록 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반회의에서 담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퇴봉사적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퇴봉정신에 대해 더욱 깊은 인식을 가지고 실제 행동으로 퇴봉을 따라배우도록 격려했다.

담원교사들의 인솔하에 교무청사 실내의 정경도 진행했다. 교원과 학생들이 함께 교정의 위생 사각지대, 독서화랑의 서적, 활동실 등을 정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였다.

/ 사진 제공 룡정실험소학교

## 압록강변에서 '퇴봉정신 교정 진입' 활동 진행

제 61 번째 퇴봉 따라배우기 기념일을 맞으며 백산변경관리지대 장백변경관리대대는 '퇴봉정신 교정 진입' 계열 활동을 진행했다.

장백변경파출소와 십이도구변경파출소는 공동으로 관할구역 소학교와 '큰 손이 작은 손을 이끌고 퇴봉 따라배우기' 주제활동을 진행했다. 그들은 어린이들에게 퇴봉이야기를 들려주고 퇴봉의 선진사적을 소개했으며 <따라배우자 퇴봉을> 노래도 배워주었다.

십사도구변경파출소와 금화향변경파출소는 '퇴봉정신 강연단 교정 진입' 활동을 벌여 어린이들에게 퇴봉정신을 학습하고 어려서부터 퇴봉을 따라배워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에게 퇴봉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신방자변경파출소와 팔도구변경파출소, 십삼도구변경파출소, 장백

변경검사소는 또 저마다 사회구역에 침입하여 군중들과 함께 퇴봉학

습 좌담모임을 열었으며 기록영화 <영원한 퇴봉>를 관람시켜 광범한 청년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일터를 사랑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며 실제 행동으로 퇴봉정신을 고양하도록 했다.

팔도구변경검사소와 룡강변경파출소, 보천산변경파출소는 퇴봉 따라배우기 기념일을 계기로 변경 수라와 여러 농촌마을에 대한 순리를 강화하고 얼음과 눈으로 덮인 산길이나 농촌도로가 미끄러워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기 어려운 문제를 적극 해결해 교통안전과 촌민들의 출행 안전을 도모해줌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의 호평을 받고 있다.

/ 리준량 (李俊良), 류명양 (劉明陽), 최창남기자